

# 뒤틀린 '남성 갑질' 여전...편견·멸시에 우는 여성노동자

오늘 세계 여성의 날...광주 산업현장 여성노동자들 하소연 들어보니

광주·전남지역 여성 노동자들이 고질적인 편견과 차별·멸시를 받으며 생계를 위해 일터에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지역 일터에는 여전히 남성중심적인 사고와 고정관념이 지배하고 있는 것이다.

7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올해 1월 기준 광주·전남 지역 취업자(광주 77만 6000명, 전남 97만명) 중 여성 비율은 43.6%(광주 34만 1000명, 전남 42만 1000명)에 달한다.

여성 노동자가 절반에 달하지만 차별은 여전했다. 광주여성가족재단이 지난해 광주지역 7개업종 남녀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23년 광주지역 기업 성별격차 실태 모니터링' 결과 채용 단계부터 남녀 차별이 있다는 응답이 78.3%에 달했고, 동일직급, 동일업무에서 성별 임금 차이가 있다는 응답도 77.7%나 됐다.

일터의 현실은 여성에게 더 가혹했다. 광주일보 취재진이 세계 여성의 날(3월 8일)을

하루 앞둔 7일 만난 광주·전남 지역 여성 노동자 3명은 "여전히 일터에서 여성은 남성이 가르쳐야 하는 존재이고, 편견과 차별에 간혀있다"고 입을 모았다.

남성 비율이 90%가 넘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15년째 식당 노동자로 일하고 있는 정미선(여·50)씨는 여성이라는 이유로 멸시를 경험했다.

육아를 위해 직장을 접고 전업주부로 돌아섰던 정씨는 아이들이 자라다 다시 일하기 위해 이곳에서 일을 시작했다.

그는 작업복이 아닌 사복을 입고 공장식당에 온 직원에게 식권을 달라고 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내가 여기 다닌지 10년이 넘었는데 왜 날 못 알아보냐"며 정씨에게 대뜸 반말로 소리를 질렀기 때문이다.

정씨에게 '밥이 맛없다'고 쏘아붙이고 '왜 탁틱거리냐'며 친절을 강요하는 남성 직원들도 있었다. 식판까지 팽개치며 행패를 부리는 직원도 있어 그

친절·웃음 강요당하고 인격 모독  
기술직 "가르쳐주면 아냐" 조롱  
식당 노동자 행패·폭언 시달려  
아주머니·아가씨 호칭에 반말도  
동료 의식·성인지 감수성 낮아

때마다 모멸감과 회의감이 들었지만 생계를 위해 참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정씨의 설명이다.

정씨는 "그나마 직원들이 우리를 '아줌마'라고 부르면 다행일만큼 언제나 반말과 멸시가 기본으로 깔려 있다"며 "나도 누군가의 아내이자 엄마인데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하나 싶었다. 남자였다면 이런 취급을 받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여성으로서 친절과 웃음을 강요당했던 정씨는 "남아선호사상 시대에 살던 사람들이 여전히 직장

에 다니고 있다보니 여성에 대한 은연 중의 차별은

아직도 존재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여성 비율이 높은 현장도 상황은 비슷했다. 반도체 패키징 회사인 엠코에 다니는 이수옥(여·49)씨는 "여성 직원이 대부분이지만 현장의 주체는 역설적으로 여성이 아닌 남성이다"고 했다. 여성 직원이 기계를 만지질 잘 알지도 못하면서 함부로 만져서 자재에 영향을 끼친다는 편견이 일반화돼 있고, 남성 직원의 실수로 자재에 불량이 생기면 이마저도 여성 직원의 작동 실수냐는 의심을 받는다.

여성 직원에게 지도할 때도 "가르쳐주면 아냐냐?"며 인격을 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자신의 휴게 시간을 늘리기 위해 여성 노동자의 휴게시간을 줄이려 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씨는 "한 남성 직원은 여자 직원에게 고백했다가 자신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력을 휘둘렀다. 이후에는 피해자인 노동조합에 찾아와 퇴배 자신을 보호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전했다.

직장에서 아무렇지 않게 여성에 대한 편견과 고

정관념이 담긴 말을 하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혜진(여·30) 사회복지사는 "여자가 ~해야 한다'거나 '술자리에서는 여자가 술을 따라줘야 맛있다'는 등 남성직원이 인격 모독, 여성 비하적인 발언을 서슴없이 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토로했다.

장애인과 활동지원사를 연계해주는 일을 하는 최씨는 "어린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뜸 '아가씨'라고 부르는 사람들이 있다"며 "외부 회의에 참여했을 때 직급과 상관없이 여자라는 이유로 의견이 무시당하고, 말을 걸지 않기도 한다"고 했다.

최씨는 "여성이 당연히 못할거라고 생각하는 편견과 여자는 ~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편견이 바뀌었으면 한다"고 소원했다.

한편, 여성가족부 2022년 지역성평등보고서에 따르면 경제활동분야 '성별 임금격차' 성평등지수는 광주가 전국 11위로 특·광역시 중 대구와 울산 다음으로 낮고, 전남이 17위로 전국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7일 오전 광산구 우산동 전세사기 피해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광주YMCA 제공>

## 사회초년생들 "전세사기 피해 대책 세워주오"

30억대 피해...구제책 마련 촉구

광주시 광산구 한 임대주택에 입주한 사회 초년생들이 30억대 전세사기 피해를 호소하고 나섰다.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전세사기 피해자 모임'(단체)과 광주YMCA 등 시민단체는 7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광주시는 전세사기 피해 대책을 마련하고 시행하는 전세보증금을 반환하라"고 촉구했다.

단체는 "2022년 7월부터 총 9세대의 사회 초년생이 세대당 3억 9000만원의 전세사기 피해를 봤다"며 "현재 한푼도 피해금액을 변제받지 못한 채이지만 쌓여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부분 20~30대로 "인터넷 카페와 블로그 광고에 나온 '2년간 이자 지원', '언제든 퇴거 가능', '마지막 잔여세대 2년간 전세 이자 지원' 등을 믿고 입주했지만, 계약기간이 종료돼 보증금을 돌려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1년 전 광주경찰청에 1차 고소장을 제출했지만 몇차례 이자를 줬다는 이유로 시행사는 무혐의 처리됐고, 피해금이 3억 원 이상이라는 이유로 광주시의 전세 피해 지원도 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단체는 최근 2차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해 현재는 광주경찰청에 이첩된 상태다. 피해금액은 30억 원 가량으로, 피해자들은 원금은 물론 수천만원에 달하는 이자도 갚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힘담한다며 동급생 친구 폭행  
북부경찰, 여고생 3명 입건

힘담을 한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를 폭행한 여고생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7일 광주북부경찰은 친구를 때린 여고생 3명을 특수폭행 혐의로 입건해 조사중이다.

이들은 지난달 27일 밤 9시경 광주시 북구의 한 공원에서 A양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네 친구사이인 이들은 경찰조사에서 "A양이 힘담을 하고 다녀 기분이 나빠 그랬다"는 취지로 경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중이다. /김다인 기자 kdi@kwangju.co.kr

## 사건브로커에 금품 주고 인사청탁 전·현직 경찰관 대부분 혐의 인정

광주지법, 6명 첫 재판

승진시켜 달라는 명목으로 사건브로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 받는 전·현직 경찰관들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7일 광주지법 형사 7단독(부장판사 김소연) 심리로 102호 법정에서 제삼자 뇌물취득 또는 제삼자 뇌물교부 혐의로 기소된 사건브로커 성모(63)씨와 전남경찰 출신 브로커 A씨를 비롯한 전남경찰청 소속 전·현직 경찰관 5명에 대한 첫 재판이 열렸다.

전남지역에 근무하는 현직 경정·경감 4명과 브로커 성씨·A씨는 2021년 초 승진을 대가로 각 1500~3000만원을 주고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날 재판에서 승진을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현직 경찰관 4명은 검찰이 밝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한 명은 금전 거래가 인사 평정에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는 취지로 전남경찰청의 사실 조사를 요청해 재판부가 받아들였다.

사건브로커 성씨는 혐의를 인정했지만, 퇴직경찰관 출신 A씨는 다른 사건과 관련된 수사 기록 등을 추가 검토해야 한다고 공소사실 인정을 보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겠지만 관심도가 높은 중요 사건으로 기소 이후 시간이 꽤 흘러 신속한 재판 진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음 재판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20분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브로커 성씨는 지인과 함께 2020년 1월부터 2021년 8월 사이 가상자산 투자 사기범 탁모(45·구속기소)씨에게 수사 무마 또는 편의 제공 명목으로 22차례에 걸쳐 18억 5450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1심에서 성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추징금 17억 13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경찰 사칭해 불법체류자 감금...돈 뜯은 일당 구속 기소

경찰 행세를 하면서 30대 외국인 불법체류자를 감금하고 인질금을 벌여 어머니에게 금품을 뜯어낸 일당이 구속 기소됐다.

광주지검 목표지정 형사1부(부장검사 김은경)는 지난 6일 30대 A·B씨를 인질강도, 공무원자격 사칭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7일 밝혔다.

이들은 경찰관을 사칭해 불법체류자인 C(38·태국)씨를 체포해 승용차 등지에 감금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C씨에게 인터넷에서 구입한 수갑을 채우고

사건으로 찍어 C씨의 어머니에게 전송하고 석방 명목으로 3만 9000바트(한화 149만원 상당)를 갈취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C씨가 불법체류자여서 수사 기관에 피해 사실을 신고하기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범행을 공모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암경찰은 A·B씨와 공모해 C씨 어머니에게 사진을 전송하는 것을 도운 태국 국적의 공범에 대해 수사 중이다. /유연재 기자 yjyou@

/목포·박영민 기자 kyl@

함께하는 100년농협



## 아름다운 동행 서광주농협

농업인·고객·지역사회와 함께 농업의 새로운 가치를 창조하고, 더불어 사는 밝은 미래를 만들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NH 국민은행**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쿨!

초회, 송금, 결제, 대출 그리고 금융비서까지!

전국 3,000여 개 하나로마트에서 쿨! 바로 바로 확인까지 쿨!

**NEW 리치하우스 가정종합보험 2201 (무배당)**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화재 피할 수 없어도 대비해야 합니다

임시거주비(숙박비+식비) 하루 10만원(임의상90일한도) 한도 실손보장(해당특약가입시) 월5만원으로 만기시 80%환급 (매월변동가능, 공시이율 2022년 1월 기준)

**햇살론**

열심히 사는 사람들을 위한 따뜻한 금융

자신용자, 저소득자 서민(사업자 및 근로자)을 위한 대출, 개인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차등 적용

본점 | 광주광역시 서구 죽봉대로 107(광천동) TEL. 062)362-8400~6 FAX. 062)362-8407

|                     |                     |                      |                        |
|---------------------|---------------------|----------------------|------------------------|
| 용산지점 062)526-0222~3 | 유동지점 062)512-1984~5 | 유덕지점 062)373-3235~6  | 온암벽산지점 062)529-5335~6  |
| 치평지점 062)381-8212~3 | 동림지점 062)513-8521~3 | 동운지점 062)528-2640~2  | 빛고을로지점 062)531-1213~5  |
| 쌍촌지점 062)381-6551~2 | 운암지점 062)527-3295~6 | 배틀지점 062)381-1971~2  | 양동센트럴지점 062)361-4472~4 |
| 외정지점 062)372-0421~3 | 운천지점 062)371-2772~3 | 상무동지점 062)372-3741~2 | 기아자동차지점 062)385-4977~8 |

지역대표 금융기관 서광주농협